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8 번째 순서로서 용서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 :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일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 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것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참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마 6:14 에서는 네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네 죄가 용서 받지 못한다고 하였고,

또 마 11:23-25 에서는 권능있는 기도를 위해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성경에 따라 바른 용서를 잘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용서는 하늘 나라의 신앙 생활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 장에서는 일 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백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것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I. 용서의 빛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하고 용서를 잘 해야 합니다.

먼저 마태 6:12 을 찾아 보십시오.

마태복음 6 :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Matthew 6:12 (KJV)

¹²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이 구절에서 **죄가 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즉 Debtor(*opheilō*) 빚진 자라는 말이 사용된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마태복음 6 : 12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빚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주기도문이 누가 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1 : 4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Luke 11:4 (KJV)

⁴ And forgive us our sins; for we also forgive every one that is indebted to us.

이 구절에서는 빚진자(debts) 대신 죄(sin, hamartia)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말티아는 과녁에서
빛나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와 누가 복음을 종합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빚진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부스 빚을 지었는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로서 피조 세계에 여러 가지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도덕법과 양심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법을 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의무 아래 있습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을 갚을 수 있었으면 빚진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벌 대신 용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대신 값없이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 함으로 네가 지은 빚을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값없이 용서 받은 것같이 다른 사람을 값없이 용서하라 이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빛을 진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가지는 용서의 빛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의 용서의 채무 관계를,

에베소서 4 : 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에 대한 비유가 마태 복음 18 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 : 23 이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18 : 24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마태복음 18 :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마태복음 18 : 26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마태복음 18 :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빚진 자가 바로 마 6:12, 주기도문에서 사용한 빛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빚을 갚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 : 28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마태복음 18 : 29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마태복음 18 :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마태복음 18 : 31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 악한 종은 자기는 값없이 용서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주인은,

마태복음 18 : 32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마태복음 18 :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마태복음 18 :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마태복음 18 : 35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악한 종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아 자기 죄도 용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용서 받은 것같이 다른 사람을 값없이 용서하라 이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Credit 을 쌓는 것과 같으며,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Bad Credit 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6:14 에서

마태복음 6 : 14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 : 1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잘못이든지 용서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하느냐?

비로 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입니다.

II. 용서를 하는 방법

다음에 우리는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몰라
성경대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계부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이 소년은 성장해가면서 자기
계부가 자기 엄마를 abuse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소년의 마음 속에는 그럴 때마다

자기 계부에 대한 미움이 자라 갔습니다. 이소년은 성년이 되어 진지한 기독교인이 되어 용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 : 14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 : 1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읽고 자기 계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서를 하려고 했지만 워낙 오랫동안 쌓인 미움이라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도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다가

어느날 이 사람은,

마태복음 5 :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 :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마태복음 5 :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용기를 내어 자기 계부를 찾아가서 당신을 미워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성경을 잘못 알아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먼저 마 6:14-15에서는

마태복음 6 : 14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 : 1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잘못된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남이 나에게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 그래서 이런 경우 무조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 5:23-25 에서는

마태복음 5 :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 :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마태복음 5 :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구절에서는 잘못된 주체가 내가 남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형제에게 내가 angry 를 하고, 욕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마음을 내가 상하게 한 경우입니다. 잘못했으니 당연히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KJV 에는 22 절에

마태복음 5 :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is angry with his brother **without a cause** shall be in danger of the judgment: and whosoever shall say to his brother, Raca, (KJV)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will be subject to judgment. Again, anyone who says to his brother, 'Raca,'¹³ (NIV)

“이유없이(without cause) -이 말이 삽입되었지만, NIV, NAS 에는 없습니다.- 형제에게 노한 경우, ‘라가’ 라는 옥을 한 경우, 그래서 그 형제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사화하라는 의미입니다.

마 6:14-15 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였을 경우, 내가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고, 남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 5:22-24 은 내가 형제의 마음을 이유없이 상하게 했을 경우 먼저 가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이 소년은 자기 마음 속에서 계부를 용서만 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였으니 용서해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계부가 얼마나 황당한 느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가 양된 것은, 이미 오래된 미움이 마음 속에 밝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양된 것이지, 사과를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미움을 금식 기도로 회개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과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오랜 동안 깊이 들어 있는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는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재 의식에 깊이 묻혀 있다가 일기가 나쁘면 의식의 표면으로 떠 올라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인격의 분열과, 육신의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빨리 제거하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능력있는 기도 가운데 용서를 통하여 흉악의 결박이 풀리면, 용서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III. 다음은 용서가 영적 생활에 주는 유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받고 나서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지은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도 용서 받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 :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남의 잘못을 참고, 용서하고, 없었던 것으로 잊어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없었던 것으로 잊어버리시고 더 좋은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용서를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만큼 깊어지며, 우리의 영혼은 미움에서 벗어나 점점 성결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골로새서 3 : 13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 :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마가 복음 11:23-25 에서는 예수님은 권능있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 :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 :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 :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 : 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서서 기도 할 때에 남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 권능있는 기도를 하려면 용서하라!
만약 누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지은 빚을 갚으려 하지 않고 또
빚을 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빚은 갚지 않고 또 Loan 을 얻으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또다시 Loan 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용서로 좋은
Credit 을 하나님께 쌓아야 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권능이 있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IV. 차원 높은 용서는 신적 용서이며 신적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 :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이까
마태복음 18 :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번 뿐 아니라
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런 용서는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 부터 나오듯, 용서도 하나님께로 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를 많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 : 41 가라사대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누가복음 7 : 42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복음 7 : 43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누가복음 7 : 44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 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누가복음 7 :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복음 7 : 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누가복음 7 : 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는, 자기가 용서 받음과 같이,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되듯 용서도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됩니다.

이 여인과 같은 이런 깊은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를 깨뜨리는 기도에서 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깊은 교제의 상태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주기도문강해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주기도문 강해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